

여수시민 78%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계획 긍정 평가”

1045명 설문...개발 핵심목표 ‘관광자원 개발’ 가장 많이 꼽아 73% “알고 있어”...관광 발전 최우선 과제 ‘바가지 요금 근절’

민선 8기 여수시의 역점 사업인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을 여수 시민 70% 이상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시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시누리 집 시민주동광장 남녀 시민 패널 6650명을 대상으로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설문 내용은 ‘여수만 르네상스 인식도’와 ‘5개년 추진과제 적절성’, ‘정주여건 개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 등 총 11개로, 1045명의 패널이 답했다.

먼저 여수만 르네상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조사에서는 “들어본 적 있다”가 42%로 가장 많았으며, “잘 알고 있다(20%)”와 “매우 잘 알고 있다”(11%)고 답한 응답자까지 합하면 응답자의 73%가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모르겠다”와 “전혀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27%에 불과했다.

특히 ‘5개년별 실행과제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21%)와 “약간 그렇다”(18%) 등 응답자의 7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여수만 르네상스 핵심 목표로는 ‘관광자원 개발’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제산업 발달’(20%), ‘기후환경보호’(18%), ‘정주여건 개선’(15%), ‘일자리 창출’(14%), ‘문화·예술기

반 확대’(7%)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경제문제’(38%)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바가지요금 근절’(41%)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여수의 미래 100년을 시민들과 함께 그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 신규 과제 발굴과 홍보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관련한 설문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해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사회단체·시민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chkim@



곡성어린이도서관이 도서관이 VR 통한 ‘실감형 동화체험’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체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 <곡성군 제공>

가상현실 속 동화세계에 빠져보세요

곡성어린이도서관 ‘동화체험’ 운영

가상 현실에서 동화를 체험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곡성어린이도서관이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첨단 가상현실(VR) 기술을 접목한 ‘폴짝폴짝 실감형 동화체험’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실감형 동화체험’은 VR 기술을 동화에 접목하여 5면으로 구성된 몰입형 체험 공간에서 진행되는 미래형 독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동화 구연 선생님의 지도 아래 벽과 바닥을 터치하며 VR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온몸으로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은 9월에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 ‘꿀벌 마야의 모험’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아기 돼지 삼형제’, 11월에는 ‘장화 신은

고양이’ 등 총 4편의 동화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도서관 관계자는 “미래형 독서체계에 걸맞은 첨단 IT기반 콘텐츠이기에 아이들의 호응도가 높다”며 “실감형 동화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도서관과 책에 대한 관심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감형 동화체험’은 유아교육기관 18곳의 단체 참여로 진행되며, 개인 체험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립도서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곡성어린이도서관(061-363-859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곡성어린이도서관은 내년부터 새로운 5편 콘텐츠인 ‘4차원 공룡세계 탈출 대작전’, ‘엄지공주’, ‘방귀시합’ 등 총 6종의 신규 콘텐츠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광양시, 섬진강에 재첩 7t 살포...채취행위 자제도 요청

서식지 확대·자원 회복 기대

광양시가 최근 재첩자원 확대를 위해 재첩 7t을 살포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섬진강 특산물인 재첩의 서식지 확대와 재첩자원 회복을 위해 지역 주민, 재첩 생산어업인, 전남동부수협,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진강 하류에서 재첩한 재첩 약 7t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어업인 소득 창출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약 97톤의 재첩을 이식·살포했다. 이번엔 살포된 재첩은 약 1개월간의 적응기를 거쳐 정착하게 되고, 내년 5월부터 성장과 산란을 반복하며 재첩 종파와 성체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시는 방류한 수면에 이식된 재첩이 정착해 점차 서식량이 증가하는 적응기 동안 재첩 채취행위를 자제하도록 어업인들을 지도하고 유관기관과 불법 어업 합동 단속, 현수막 게시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섬진강 재첩잡이 손들어업’이 2018년 11



광양시는 지난 20일 다압면 섬진강에 재첩 자원 확대를 위해 재첩 7t을 살포했다. <광양시 제공>

월 국가중요어업유산 7호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7월 국내 어업 분야 최초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확정됨에 따

라 광양시는 광양 섬진강 재첩 브랜드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김대성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27일 전남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

25개 기업 180명 채용 예정

광양시는 오는 27일 광양을 실내체육관에서 2024년 전남 동부권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 동부권 일자리박람회’는 광양시·전라남도·전라남도 동부권 4개 시군(순천시·고흥군·보성군·화순군)·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광주지방보훈청·여수고용노동지청·KOTRA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남도내 최대 규모의 일자리 채용

의 장이다.

이번 박람회는 현장채용관(우수 구인기업 부스) 뿐만 아니라 정책홍보관, 취업컨설팅관을 운영해 구직자에게 맞춤형 채용 정보 및 방향, 취업 준비 사항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박람회에서는 정인화 광양시장,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전라남도의회 의장, 기업관계자 등이 ‘지역인재 우선채용 협약식’을 갖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우리 지역 일자리 안정망 강화’,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을 결의할 예정이다.

한편 박람회에 참여하는 ㈜에어릭스, 광양알루미늄 주식회사, ㈜대성에스앤엠광양공장, 하이텍주식회사, ㈜프롬스, ㈜광양기업, 전남기업㈜, 세신전기㈜, 광양교통, 주식회사 에스엠씨 등 관내 10개 사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 25개 기업은 현장 면접을 통해 총 18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지역의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길 기대하며 일자리 미스매치와 구인난, 구직난까지도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성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오늘부터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여수시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24일부터 실시한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는 체납액 징수를 제고 및 조세 정의 실현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24일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하여 시내 주요 도로·대형주차장·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 고질·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다만 차량 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체납세액의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영치를 보류하는 등 납세 편의가 제공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유아미디어 안전교육

순천시는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가 유아 및 아동이 미디어와 디지털 기기를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24년 유아미디어교육 지원사업’ 교육과정을 개발해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디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이 그동안의 유아미디어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 중심 및 유아·아동 맞춤’ 과정을 개발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이를 교수학습지도안으로 현장에 적용해 유아·아동에게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미디어의 종류와 개념 ▲영상의 주요 속성 탐구 ▲유튜브 안전하게 사용하기 ▲스마트폰 활용 방법 ▲영상 촬영 및 편집의

이해 ▲온라인 환경에서 유의해야 할 점 등이다.

사업은 11월 말까지 진행되며 순천 슬기별어린이집·신대푸른니어린이집의 만 5세 유아·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시행된다.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관계자는 “기존 교육과정을 변화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생애주기 특성에 맞게 개선·보완했다”며 “유아·아동이 일상에서 접하는 미디어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군, 도화 버스정류장 신축 공사 마무리

고흥군이 도화면 소재지에 도화면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도화 버스정류장 신축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도화 버스정류장은 약 3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버스의 회차가 가능한 약 640㎡의 부지에 냉·난방기 및 화장실 등을 갖춘 66㎡ 규모의 대합실로 지어졌으며, 추후 연휴에 맞춰 14일부터 사용을 시작했다.

이전까지 도화 버스정류장은 편의점 옆 5평 남짓한 간이 승강장에서 인근 식당 주차장과 정류장 부지를 공유하고 있어, 버스 회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이용객의 교통사고 우려가 항상 존재해 왔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말부터 도화면 기관사회단체, 도화면사무소, 지역 군의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23년 9월 부지 매입을 완



도화 버스정류장.

료하고 올해 9월 준공에 들어갔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버스정류장 신축이 도화면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개선과 도화면 중심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흥=주낙준 기자 gjju@kwangju.co.kr



구례군이 지난 12일 재가 의료사업 협력기관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례군, 협력기관 4곳과 재가 의료 사업 협약

구례군이 재가 의료사업 협력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곡성군은 최근 구례읍사무소에서 재가 의료사업 협력 기관 4개소를 선정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은 4개소는 구례병원·재가사랑노인복지센터·구례지역 자활센터·구례군 교통약자 지원센터이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 등의 필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장기 입원(1개월 이상)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퇴원할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다. 군은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 계획과 서비스 지원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지정된 협력 기관 4개소는 대상자별 적정 관리를 위한 케어플랜 수립, 건강상태 모니터링, 집중교육·상담 등 재가 의료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게 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